

윤옥경 교수님을 추모하며...



윤옥경 교수

다음은 2016년 7월 7일에 돌아가신 故 윤옥경 교수님을 추모하기 위하여 제자 몇 사람과 아들이 보내온 회고의 글들을 모은 것이다.

윤옥경 선생님에 대한 추억

내가 처음 윤옥경 선생님을 처음 만난 건 1971년 봄 서울대학교 신입생 시절이었다. 그때 나는 공과대학 전자공학과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는데 (당시 공과대학 캠퍼스는 공릉동에 있었지만 태릉 근처에 있어 흔히들 태릉 캠퍼스라고도 불렀다. 이 캠퍼스는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로 바뀌었다) 그때 우리 공대 신입생들은 모두 소위 교양과정부에 속해 공대 다른 과 학생들과 혼합해서 만든 소위 SB반에 속해 있었다. 나는 SB9반이었는데 그때 미적분학 담당 교수가 윤옥경 선생님이었다. 그 당시 교재는 Ferrar 라는 영국 수학자가 쓴 Differential Calculus와 Integral Calculus 로 분리된 두 권짜리 영문 책이었다. 그 책은 소위 $\epsilon-\delta$ 를 가지고 모든 걸 엄밀히 정의하고 증명하는 책으로 대부분의 공대생에게는 너무 이론적이었지만 수학적으로 매우 재미있는 책이었다. 수업 첫날 오신 윤 선생님은 매우 인상적인 분이셨는데, 우선 눈을 유난히 잘 깜빡거리시고 또 아주 잘 웃으셨다는 것과 계산과 판서가 무지무지 빨랐다는 것이었다. 나의 윤 선생님과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의 윤 선생님과 본격적인 인연은 내가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대학에서 한동안 교편을 잡은 다음 귀국한 1991년부터였다. 당시 윤 선생님은 기하학 분야의 대부로서 우리 젊은 교수들을 많이 보살펴주셨다. 윤 선생님은 항상 잘 웃으시고 자상하셔서 우리들은 모두 윤 선생님을 잘 따랐다. 좀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윤 선생님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해군소령으로 예편하셨다는 사실은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친밀감을 느끼게 했다. 윤 선생님 보다 몇 년 연상이지만 나의 부친도 서울공대에서 교편을 잡다가 6·25 사변이 나서 공군에 입대해 공군소령으로 복무하다 예편했고, 또 그 후 같이 서울대학에 교수로 근무하셨다는 사실로 나는 윤 선생님이 아버지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지금도 두 분이 새삼스럽다.

그 당시 수학과는 교수 숫자도 얼마 안 되어 모두 가족 같은 분위기였고, 수학과 사무실도 매우 작아서 교수들이 항상 모여서 수학에 관한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문제도 풀곤 했는데 사무실에 가면 윤

선생님은 거의 항상 거기 계셨고 무언가 문제를 풀고 계셨다. 특히 계산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귀재로 추앙받고 있었고 항상 무언가 기발한 해법을 만들어 내시곤 했다.

지금 젊은 수학과들은 아마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해방 후 90년대 중반까지 우리 서울대학은 학문적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심지어는 수학과서관에 저널이 매우 부족하여 연구가 어려울 지경이었고 나도 귀국하면서 이점을 가장 염려했었다. 그래도 우리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은 편이었지만, 윤 선생님 세대는 정말로 가장 척박한 시대를 사신 분들이다. 일제 시대에 태어나 대동아 전쟁, 제2차 세계대전, 해방, 6·25 사변, 혁명을 거치면서 거의 자학자습 수준으로 공부하신 분들이었다. 그래도 그 분들이 가르치신 우리 세대는 제대로 교육을 받은 복 받은 세대인 셈이고, 이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우리 젊은 교수들로부터 교육받고 있는 지금의 젊은 수학과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 우리도 수학 뿐 아니라 전 학문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또 머지않은 장래에 필즈메달 수상자도 나오리라 기대한다. 우리 사회의 이런 경이적 발전 뒤에는 윤 선생님과 같은 뛰어난 분들의 희생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윤 선생님을 보면 항상 비교대상으로 인도의 Ramanujan이 떠오른다. Ramanujan은 인도의 척박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Hardy라는 초일류 수학자가 멘토가 되어줘서 세계적인 수학자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윤 선생님의 젊은 시절에는 불행히도 Hardy 같은 사람이 없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 윤 선생님도 Ramanujan 못지않은 세계적 수학자가 되셨을 것이다. 이 모두 우리 시대의 아픔이고 우리가 겪어왔고 또 겪고 있는 아쉬움일 것이다.

윤 선생님이 생애의 마지막 무렵에 심취하신 건 마방진이였다. 어느 날 윤 선생님이 마방진을 무지 많이 만들어 내는 방법을 찾았다고 아주 기뻐하시던 일이 생각난다. 그 내용은 아드님인 윤정한 교수가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빛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이 글을 마치면서 윤 선생님이 눈을 깜빡거리며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따르라 하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우리에게 지적 자양분을 주셔서 우리를 키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항상 돌봐 주시던 아버지 같은 선생님,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시길 기원한다.

[최형인(서울대학교)]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지금도 전화 드리면 시원스런 목소리로 “이승훈이야? 잘 지냈어? 무슨 일이야?” 하시면서 반갑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젠 빌 수 없네니 그리운 마음이 듭니다.

돌이켜보면 선생님을 처음 뵈는 것은 1982년 학부 3학년 때 미분기하학 강의를 들으면서였습니다. 그 후 대학원을 다니면서, 수학과 조교를 하면서, 교수가 되고 나서는 수학올림피아드 일을 하면서 선생님을 가까이에서 자주 뵈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선생님을 뵈어 왔는데, 선생님께서는 늘 한결같은 분이셨습니다. 소탈하시고, 온화하시고, 근면하신 분. 그리고 수학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셔서, 일흔도 훨씬 넘으신 연세에도 요즘 이런 거 연구하셨다고 큰 눈을 ‘끔빱끔빱’ 하시며 설명하셔서 저를 당황하게 하신 분. 우리나라의 수학 올림피아드 사업을 그 시작부터 추진하셨고, 우리나라의 수학올림피아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으며, 평생을 봉사하시면서도 명예를 탐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려고 헌신하신 분. 저에게 있어서 윤옥경 선생님은 이렇게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일 중의 하나는, 2001년에 우리나라에서 국제수학올림피아드를 개최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저는 출제위원회와 채점위원회의 위원으로 기하분과를 맡고 있었고, 선생님께서도 위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연세가 일흔이 넘으시고 이미 은퇴하신 상태이셔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칭하여 담당하지는 않으시고 자유롭게 위원회 전반의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우리 젊은 위원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문제를 검토하시다가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또는 별해를 발견하시게 되면 지체 없이 저를 비롯한 위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선생님께서 어찌나 일을 열심히 하셨는지 나중에는 기하분과를 맡았던 위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번갈아가며 선생님의 말씀을 받기로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회식 때가 되어 식사와 함께 약주라도 하시어 얼큰하게 되시면,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 큰 손으로 저의 허벅지를 ‘강타’하시며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허벅지의 통증으로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보다는 선생님의 매서운 손길을 피하는데 더 신경을 썼지만 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A4용지에 문제와 풀이를 손으로 쓰셔서 주셨습니다. 저는 그 풀이를 받아듣고는 풀이의 상세함과 다양한 별해 뿐만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들여 쓰신 것에 감동을 넘어 부끄러운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선생님께서 KMO 문제의 풀이를 주신 적이 있었는데, 한 문제의 풀이를 무려 8가지나 적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늘 몸소 실천하시고 후학들을 위하여 봉사하셨으며 손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선생님께서 평생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일 하셨던 수학 올림피아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삶을 통해 주셨던 소중한 가르침을 제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보고 배운 대로 열심히 하려고 다짐합니다. 그것이 선생님을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이승훈(유원대학교)]

혜정 윤옥경(莘亭 尹玉鏡, 1929-2016) 선생님을 그리며

필자는 1976년 윤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던 미분기하학개론을 들으면서 가까이 접하게 되었는데, 강의 시간에 들어오셔서 눈을 한번 깜빡이시면 몇 명이 앉아 있는지 바로 아시는 분이셨다. 별명이 “살아 있는 계산기”였는데, 필자가 아는 사람 중에는 윤 선생님만큼 계산력이 뛰어난 분은 없었다. 심지어 동료 교수 중에는 “나는 계산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언을 윤 선생님께 바치기도 하였다. 정년하시고 나서도 마방진 연구를 하시면서 방대한 양의 계산표와 새로이 개발하신 알고리즘을 가지고 계셨다. 서울대학교가 1975년 관악으로 이사 오면서 모든 시설이나 행정이 미비하였는데, 더 큰 문제는 전교생의 수업 편성을 위한 강의실이나 시간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새로운 환경에서 수업을 편성하는 문제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복잡한 문제라 대학 본부에서도 감당할 수 없었다. 이때 윤 선생님께서 가지신 탁월한 능력을 헌신적으로 발휘하셔서 서울대학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 마련한 수업편성표는 대학 본부에서 수 십 년 동안 사용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수학과 강의의 편성도 오랫동안 맡으셨다.

선생님께서는 본의 아니게 오해 받은 적이 가끔 있었다. 수학과가 동승동에 있던 시절에 무슨 수당을 타러 교무과에 직접 들르셨다. 당시만 해도 급사가 주로 심부름을 하던 때였는데, 담당 여직원이 “윤옥경 여사와는 어떤 관계세요?”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관악에 와서도 편입학 시험을 치르러 온 한 학생이 당시 학부장이시던 조영현 교수님께 “윤옥경 교수님이시죠?”라고 인사하여 한바탕 웃었던 생





사모님께서 윤옥경 교수 정년기념 붓통에 쓰신 글

각이 난다. 사모님이신 갈피 박양순 여 사님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이 시고 서예대전에서 특상하신 저명한 서예가이시다. 수리과학부 건물(27동)과 상신수리과학관을 연결하는 공간에 쓰여 있는 “상산마루”라는 글도 사모님께서 써 주신 것이다.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졸업도 못하셨지만, 힘든 시기에도 항상 희망을 잃

지 않으셨고, 용기 있는 분이셨다. 자신의 명예와 사욕을 끝없이 추구하며 남을 배려하지 않는 동료도 있었지만 윤 선생님은 정직하시고 풍류를 아시는 분으로, 도량이 넓으시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셨다. 선생님께서 수학과 강의편성을 맡으셨던 어느 날, 필자의 연구실 방문을 껴 열고 들어오시면서 하시던 말씀 “야, 너 이번 여름에 계절학기 한 강좌 맡아야 해!” 하시던 소탈한 선생님이 그립다.

[김홍중(서울대학교)]

대한민국 격동기를 제대로 겪으신 아버지의 삶

2016년 7월7일 오후 6시 50분경 아버지께서는 아주 편안히 그리고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은 학생부군신위가 적힌 천으로 덮는데, 아버지의 관은 커다란 태극기로 덮었습니다. 화장을 한 후, 납골함을 이천의 국립묘지(정확한 명칭은 국립이천호국원) 25구역의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이 그려진 3번 벽의 오른쪽 상단에 모셨습니다.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께 대한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난감한 일인지,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계속 우리와 같이한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남은 사람들이 계속 그 분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방법뿐인 것을 알기에, 추모하는데 아들로서 감사히 돕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삶 중에서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로서의 삶은 다른 선생님들께서 추억하실 테니, 전 아버지가 왜 국립 호국원에 안치되었는지, 왜 16년간 군인으로 살았는지 이와 관련된 아버지의 삶을 여러 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1929년 일제강점기에 경상남도 김해군 대저면(현재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김해공항 근처)에서 태어나신 아버지는 소학교를 여덟 살에 입학하지 못하고 일 년 늦게 아홉 살(1937년)에 입학합니다. 그 당시엔 미취학아동이 많아서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소학교 2학년 때 거북이와 학의 머리 수를 맞추는 문제를 암산으로 풀

어서 선생님을 놀라게 하셨다는데, 모여 있는 거북이와 학의 머리가 모두 20개, 다리가 모두 50개면, 학은 몇 마리인가?

20마리가 모두 다 학이라 생각하면, 다리가 40개여야 하는데, 10개가 더 있으므로, 즉 다리가 2개 더 많은 거북이가 5마리가 더 있으므로 학은 15마리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금방 답을 했다 하십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너는 산술 천재다’라고 감탄하셨으며, 이때부터 더욱 산술공부에 심취하셨다 합니다.

소학교에서 국민학교로 이름이 바뀌어 6년간의 국민학교를 마치고 상급학교의 진학을 위하여 상경하여 경기중학교에 입학시험을 1943년에 치룹니다. 당시 경기중학교에는 동경제국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할아버지의 고향 앞집 사는 친구¹⁾분이 계셨는데, 입학시험 채점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합격이라고 알려주셨답니다. 그러나 발표하는 날 학교에 가보니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인 선생 3명은 채점에만 관여했고, 최종결정은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처리하여 고액 기부자와 친일파 귀족들 자제를 입학시켜 줘에 따라 결국 탈락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학원이라는 것도 없어서 결국 할아버지가 지역유지들의 후원을 받아 설립한 사립 서빙고 국민학교에서 1년을 더 다니게 되어 국민학교 졸업장이 두 개가 됩니다. 재수 후에 경기중학교는 포기하고 1944년에 경기공업중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합니다. 해방 후 1946년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생님이 담임이었는데 아버지의 수학 실력을 높이 평가하여 일본 수학 책을 쥐서, 더 많은, 더 넓은 수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적 실력이 쌓여 1학년 학급에 가서 수학을 가르치기도 했으며, 중학교 4학년 때는 대학 2학년 실력이라고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직업학교인 경기공업 중학교에서 경남중학교로 1949년에 전학하고, 1950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에 입학합니다.

서울대 입학식은 6월 19일 월요일에 열렸고, 일주일 동안 수강신청과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그 다음 주부터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서울대에서의 수업이 시작되는 일정이었었는데,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 주 일요일인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버지께서 전쟁이 인생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늘 한탄하셨습니다. 훌륭한 수학자가 되는 것이 어려울 때부터 평생 꿈인데,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저를 나무라실 때 전쟁도 없는데 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냐고 말씀 하시곤 하셨지요. 6월 26일 아침에 대포소리를 들으면서 첫 등교하여, 1-2교시 물리 강의를 듣고, 다음 강의인 국어는 원래 첫 강의는 언제나 휴강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공식적으로

1) 할아버지에게 동네친구이자 사돈이고, 아버지에게 동네 아저씨이자 장인어른이고, 저에게 외할아버지입니다. 서울대 공대 응용수학과 교수였고, 3대 대한수학회 회장도 역임하셨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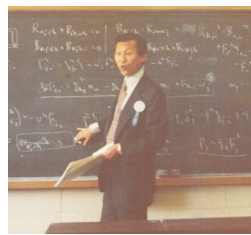
학생으로서 서울대학교에서의 수업은 물리 두 시간이 전부가 됩니다. 그래도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다음날인 6월27일에도(전철도 안 다니던 시절에) 우여곡절 끝에 학교 정문에 도착했지만 ‘연락할 때까지 무기휴학’이라는 공고문이 붙어 있어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피난도 못하고 석 달 동안 서울 사직동 작은할아버지 집 지하실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중앙청에 인공기가 걸려있는걸 계속 보셨답니다. 928수복 후에 부산으로 내려 가셔서 가족들에게 살아있음을 확인시키고, 군 입대를 결심하십니다. 당시 대학생 신분이면 징집을 피할 수도 있었다는데, 나라가 전쟁 중인데 대학생으로 공부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장교로 입대하기 위해 사관학교 모집 중에 가장 빠른 해군사관학교에 8기로²⁾ 입교합니다. 사관생도 시절에 원산항에 함포사격을 때리던 구축함에 승선하여 625참전 군인이 됩니다.

3년 4개월의 사관학교를 마치고 학점도 모두 이수하여 이학사를 받으시고, 1954년 4월 소위로 임관하여 의무승선기간인 2년 동안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하지만 55년 11월에 해군사관학교 수학교관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당시의 해군사관학교 교관들이 거의 다 서울의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빈자리를 아버지께서 메우게 됩니다. 해군사관학교의 주 수업시간은 총 44시간인데 담당할 수학 수업시간이 47시간이어서 여섯 시간은 무감독 시험이나 자습 또는 왔다갔다 수업으로 고생 좀 하셨답니다. 초과강의료가 중위 월급의 50% 정도였다니. 어차피 수학교관이 된 마당에 더 좋은 교관이 되기 위해 교육 기회를 달라고 해군사관학교 교장에게 요구하여 56년 4월에 서울대 대학원에 위탁생으로 가서 2년간 36학점을 전부 A학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논문만 쓰면 석사학위를 받고 졸업할 수 있는 시점에 문교부와 국방부의 마찰로 문교부에서 대학원 위탁생의 자격을 정지시켜 연구생으로 강등시켰답니다. 연구생이란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고, 청강자격만 주어지는 것으로 그 동안의 수강이 무효가 되는 황당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한 번은 남북 간 전쟁으로, 또 한 번은 정부 부처 간 다툼으로 아버지의 인생은 또 계속 꼬입니다.



58년 다시 해군사관학교로 돌아가서 65년까지 다시 교관생활을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사관학교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므로, 정식 대학과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는 문교부에서 교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교관들에게 전임장사나 조교수 자격증을 발급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서울대 문리대 전임장사가 되기 위해 65년에 국방부에 사표를 내고 서울로 올라오십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해군 본부에 발령을 내서, 계속 군복무를 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할 수 없이 서울에서 해군 복무를 하면서, 서울대 문리대에서는 시간강사를 하게 됩니다. 66년 4월 30일에 65년에 제출했던 사표가 정식 처리 되어, 소령으로 예편하시고 서울대에서 시간강사를 하며, 전임장사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좀처럼 자리가 나지 않았답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67년 11월 초에 제가 태어납니다. 68년 3월에 서울대는 교양과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초과학 교수가 많이 필요해서, 68년 3월 1일부로 서울대 전임장사 발령을 예상했지만, 또 걸림돌이 생깁니다. 서울대 측에서는 해군사관학교 이학사 졸업장 밖에 없는 사람을 임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교수자격증을 요구했고, 이에 아버지는 문교부에 요청하여,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재직했으므로 조교수 자격증을 받으려 했으나, 문교부는 여기에 더해서 논문업적까지 추가하여 부교수 증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측이 자꾸 늦어져, 68년 11월 15일야 서울대 수학과 전임장사로 발령됩니다. 이제 와서 보니 제 첫 돌 사진이 없는 이유가 있었군요. 어찌되었든 공식적으로는 서울대에서 두 시간 물리 수업만 들은 아버지가 서울대 전임장사가 되셨습니다.

일단은 꿈에도 그리던 서울대 수학과에 공식적으로 18년 만에 돌아오셨지만 이후에도 군대에서 보낸 16년이 계속 아버지를 힘들게 합니다. 해군에서 배를 타고 있을 때 얻은 암호에 대한 지식 때문에 중앙정보부에도 얽혀 68년부터 70년까지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교육시켰고 암호부서를 신설해주고, 발을 빼셨답니다. 그런데 78년 가을에 중앙정보부에서 다시 접근해서, 서울대를 그만두고 암호부서를 맡아 달라는 압력이 들어왔답니다. 그 동안 별로 성과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국장급 월급 등 여러 가지 유혹과 회유가 있었으나, 서울



2) 공시2기와 육사10기와 동기입니다. 육사1기는 업적 유명, 아니 악명이 높지요.

대를 그만 둘 순 없어서 79년에 교환교수로 미국에 갈 예정이니 80년에 돌아오면, 겸임하기로 합의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셨지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중앙정보부의 책임자가 79년 10월 26일에 큰 사고를 치는 바람에, 아버지는 중앙정보부 일에 끌려들어가지 않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흥분한 마음으로 미국에서 돌아오신 아버지는 다시 힘든 일을 맡게 됩니다. 모두가 하기 싫어했던 학생담당 학장보를 해야만 했고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십니다. 다른 때도 거의 그랬지만 그 무렵엔 특히 더 늘 술이셨습니다. 그래도 학장보 2년의 임기를 마치고는 더 이상 군대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 수학경시대회와 KMO, IMO 일에서 보람도 많이 느끼시고 교수로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게다가 정년퇴직 후에는 정부로부터 전쟁 참전수당도 받으시고 사후엔 국립묘지로 가는 것이 결정되어, 뒤죽박죽 꼬인 인생에 대한 조그만 위안이라 생각하시어 후회나 미련은 좀 덜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예전의 서울대학교출판부에서 발행한 '미적분학'의 4장 좌표공간과 좌표계 첫머리에 좌표를 처음으로 도입한 데카르트의 명언 대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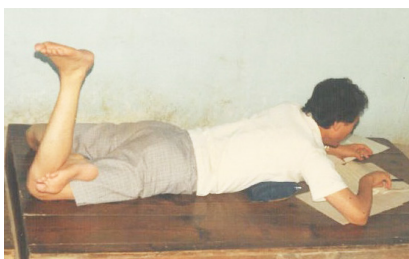
Calculo ergo sum (나는 계산한다. 고로 존재한다)

----- 윤옥경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지요. 이 말은 아버지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처음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종이 한 장과 볼펜 한 자루로 무엇이든 계산한다. 그 래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김도한 선생님과 김홍중 선생님 덕에 아버지의 말씀이 서울대학교 교재에 실려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심지어 초등학교생들이 즐겨 이용하는 '네이버 지식검색'에도 유명한 수학명언으로 소개되고 있어서, 이를 아버지께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대한 기억의 대부분은 휴일에 안방 방바닥에 B4용지만한 성지출판사 원고지가 여러 장 널려 있고, 아버지는 옆드려서 무언가 열심히 계산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정년퇴직 즈음에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에는 집에 변변한 책상 하나 없는 형편이어서 늘 옆드려서 계산하셨고, 이 때문에 늘 어깨가 아프셨지요. 말년에도 마방진에 꽃히셔서 많은 시간을 마방진을 구하는 규칙을 찾고자 계속 계산에 몰두하셨고 책으로 출판하고자 애쓰셨는데, 항암치료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



해지기 시작할 무렵 더 이상 힘들다고 하시며 저에게 유업으로 미루셨습니다. 그래도 다시 건강을 찾아서 하시던 일을 마

무리 짓고자 하셨지만 결국 그때 하시던 계산이 아버지의 마지막 계산이 되었네요.

전 아버지가 물려준 마방진에 대한 출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끝낼 지 기약도 할 수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계산할 때마다 아버지가 그리워집니다.

[윤정한(동아대학교)]

故 윤옥경 교수(1929-2016)는 기하학 분야의 저명한 수학자로서 1968년 11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1994년 8월까지 교수로 재직하였고 이후 명예교수로 후진 양성과 학문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